

<목회자신문 인터뷰 내용>

1. 여성재단의 창립배경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들이 국가의 경제발전과 민주화에 헌신해 왔으며,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양보와 조화의 미덕을 실천하면서 사회발전에 밑거름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여성의 사회참여수준은 여전히 세계 102개국 중 83위, 여성의 권한척도는 64개국 중 61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보여주듯이 우리 여성은 실업과 불안정한 고용상태로 인해 좌절하고 있으며, 양육문제로 일과 꿈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이라는 이유로 태어나기도 전에 죽임을 당하고, 여성노인, 여성장애인, 실직 여성가장 등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소외되고 빈곤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 우리 사회는 여성의 잠재성이 주체적인 사회 원동력으로 발현될 것을 요청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조화로이 발전하는 사회, 여성들이 당당하게 일을 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가 여성재단이 꿈꾸는 딸들의 밝은 미래입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이러한 바람을 이루기 위해 1999년 12월 6일, 59명의 사회각계각층 지도자와 전국 124개 여성단체들이 모여 국내 최초의 공익재단으로 설립되었습니다. 4년 동안 20만 명의 기부자들이 참여하여 77억여 원을 기부하여 주셨고, 모아진 기금을 통해 양성평등은 물론, 100여개 이상의 소외여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수십 만 명의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2. 여성재단에서 하는 사업 소개와, 특별히 중점을 두는 것

2004년 특별히 중점을 두는 사업은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 ① 100인 기부릴레이
- ② 새생명 새희망 의료계 공동캠페인
- ③ 기업공동캠페인

여성재단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금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배분사업입니다.

* 모금사업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 5월 가정의 달에 진행하는 5월 집중모금캠페인

- sbs 저소득 모자가정 돕기 특별모금생방송 '엄마, 힘내세요!'

: 2시간 10분 동안 약 1억 2천여만 원 모금

100인 기부릴레이 사업

: 2003년 총 1528명 참여, 약 1억 5천여만 원 모금

2) 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터

: 정범구 의원실, 김부겸 의원실 등 총 30호

3) 딸들에게 희망을 주는 가게

: 맹순이꽃게찜 등 총 23호

4) 재단 속의 작은 재단 - 특정명의 지정기금

: 정혜원 · 신창재 기금, 손범수 · 진양혜 기금, 성주인터네셔널

기금, 장영신기금, 광주여성 기금 등

- 총 13개 기금 유치, 기금 누적액 141,870,200원

5) 새생명 새희망 의료계 공동 캠페인

: 가천길재단 233,430,000원/ 박금자 산부인과 6,450,000원/
광주에덴병원 4,000,000원

6) 기업공동캠페인

- 국민카드 : 카드사 수익금 일부 ; 12,097,820원
- 애경산업 : 순샘한방울 판매수익금 일부 ; 13,000,000원
- 태평양 : 마몽드 바이탈E세럼과 크림 판매수익금 일부
; 10,110,400원
- 참존 : 기초화장품 세트 '탑뉴스' 판매수익금 일부
; 55,040,000원
- KTF 드라마 : 여자사랑 캠페인 ; 141,870,200원

7) 1% 희망 나눔 캠페인

- 유산 : 강성자, 김삼석, 이미경, 정광모
- 평생 공연수익 : 전인권, 강산에, 윤도현밴드, 서해경피아니스트
- 영화수익 : 동승
- 소비 : 김경오, 김길자
- 용돈 : 김하나, 박소윤, 이수인
- 기념일 : 이가운(돌잔치), 이형숙(축의금), 조점룡(생일케이크),
최종근·이연자(결혼기념일)
- 출판인세, 판매수익 : 마이클럽(여자는 맞아! 남자는 어?),
오한숙희(딸들에게 희망을!), IF(엄마없어서 슬펐니?),
김효선(당당하고 진실하게 여자의 이름으로 성공하라)
- 티켓 : 이상은, 더퀸(권진원), 에즈원, 극단'알과핵',
남부케이블, 오페라무대'新', 극단'theproject', '움·틈'
- 재능 : 율리아나미용실, 고경일(만화과교수),
이보미(상명대 만화과), 문성근(영화배우),

조세현(사진작가), 박일훈(디자인발견), 박완서(소설가)

- 시간 : 고양이손 나눔(자원봉사)
- 홍보대사 : 김미화, 김지영, 박상면, 이선희, 박진영, 이상은, 이혜영, 김보성, 진양혜

* 배분사업

1) 정기신청공모사업

- 성평등조성사업(약 3억)/ 소외여성복지사업(약 1억)
- 2003년 42개사업 지원
- 2004년 39개사업 지원 : 성평등조성사업 27개, 약 3억/
소외여성복지 13개, 약 1억

2) 수시기획사업

- 여성단체 실무자 연수 프로그램 :
2003 “짧은 여행, 그리고 긴 호흡”
(16개 연수팀, 85개 여성단체 실무자 252명, 약 7억 지원)

3) 수시신청사업

- 총 4개 사업, 약 3천3백만원,
 - ① 여성단체 설립기반 지원사업으로 참여성노동복지터 지원
 - ② 호주제폐지, 평등가족실현 시민한마당 사업으로 호주제폐지시민연대 지원
 - ③ 풀뿌리 지역 시민운동 사례공모사업으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원
 - ④ 2004년 17대 총선대비 ‘여성정치참여 확대사업’ 지원

4) 지정기탁사업

- 교보생명, 외국인여성노동자 교육사업/ 사회공익단체 역량강

화를 위한 빔프로젝터 지원사업

- 우림, 루미아트 여성장학금 지원사업
- 한국P&G, 실직여성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사업
- (주)이폴리머, 빈곤여성 생활비 지원사업
- 최종근, 이연자 부부 청각장애 학생 치료비 지원사업
- 김성주 사장,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자활을 돕기 위한 컴퓨터 지원사업
- CJ·LG 홈쇼핑, 한부모가족 한가위 선물나눔 지원사업

5) 대외협력사업

- 빈소년합창단 경북궁 초청 공연
- Giving Expo 2003
- 통합복권(로또) 관련 법안 제정

3. 사업의 어려운 점과 보람 등 에피소드

4. Fund-Raising기관에서 Friend-Raising기관으로 변화를 꾀한 이유

2003년 5월 캠페인에서의 <100인 기부릴레이>의 성과는 모금에도 도움이 되었지만 그보다 더 큰 수확은 자신이 기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기부할 것을 권하고 설득해내는 1,500여명의 노블레스 오블리제들을 엮어 내는 데서 기부문화 확산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2004년도 여성재단의 활동을 모금활동(Fund-Raising)에서 우정키우기(Friend-Raising)운동으로 전개하려는 것은 따뜻한 세상만들기와 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 돈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여성재단과 여성을 애정으로 지원해 오신 분들의 소중한 마음과 정성 덕분이었다는 것이 지난 5월 캠페인을 통해 크게 느끼게 되고 감동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여성재단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여성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간과 자원, 다양한 재능과 아이디어를 기꺼이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여성재단은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과의 만남, 변함없는 신뢰를 쌓아가는 '친구'로서의 적극적인 파트너십 관계를 지향합니다.

5. 여성재단이 꿈꾸는 세상과 비전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진정한 남녀평등을 이루기 위해 국민의식의 변화를 도모하고 세계화시대에 걸맞게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며, 남녀가 조화롭게 공존, 발전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6. 한국교회가 “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바는?